

복지포교 일꾼 뭉쳤다

최초 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 출범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산하기관 및 시설대표자들이 처음으로 사회복지법인연합회를 발족, 복지포교의 새 전기가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연합회를, 바라밀복지재단, 감천복지재단 등 40여개 불교계 복지법인이 소속된 한국불교 사회복지법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4월 8일 대전 유성관광호 호텔에서 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해홍 스님(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을 비롯해, 지현 스님(늘기쁜 마을 대표이사), 현기 스님(통도사 자비원 상임이사) 등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15명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이사회에서 초대회장에 해홍 스님을, 수석부회장에 각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 상임이사는 현고 스님(바라밀복지재단 대표이사)을 추대했다.

해홍 스님은 "교계에서 각 종단과 협력 있는 법인들이 연합회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 취지와 목적 등을 집약할 단체가 결성되기를 오래전부터 바래왔다"며 "각 단체가 연합회 복지서비스를 공유하고 자질을 향상시켜 불교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킨다면 불국토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개정 등 안전이 통과된 창립 이사회에서 스님들은 △회원 정체성 확립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불교계 요구의 맞춤형 복지 △불교사회복지 저변확대를 위한 인재양성 등에 힘을 기울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연합회 출범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불교계의 참여를 넓히고 이웃종교에 비해 열세했던 사회적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전기"며 "교계 복지사업을 활성화시켜 사회복지사와 시설관계업무자 등 일자리 창출과 자연적 포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연합회 출범은 이웃종교의 활동을 벤치마킹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국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봉사현황에서 개신교의 활약은 압도적이다. 종교별 사회복지시설수에서 개신교가 종교계시설의 60%를 차지한다. 가톨릭도 전국 15교구에서 1000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현재 불교계는 700여개소를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 복지단체를 아우른 협의체 결성도 불교계가 가장 늦다. 개신교는 지난 2001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대표회장 손인웅 목사)가 설립됐다. 이보다 앞선 1975년 가톨릭에서는 한국카리타스 총괄협의기구(위원장 안명운 주교)를 설립해 국내외의 어려운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전국차원에서 총괄해 왔다.

문화와 복지는 비불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자비심과 자비행이 포교의 원동력이라면 문화와 복지는 포교의 수레바퀴다.

예를 들어, 대만은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신자다. 대만불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교로 자리 잡은 것은 문화·복지적 접근에 주력했던 자계공덕회와 불광산 등 대만불교계의 숨은 노력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번 연합회 출범으로 한국불교도 대만불교 등을 모델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처님탄신일을 뜻하는 4월 8일 출범한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가 복지포교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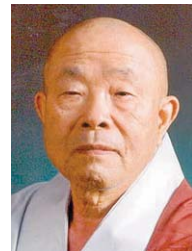
등 밝힌 청계천 선목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전통등 전시 및 자비운동 실천법'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의 명소인 청계천에 오색 팔각 가로연등과 전통등 전시를 통하여 불초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자비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생명 부처로 태어나”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 봉축법어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사진)이 4월 8일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것이요,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대비심(大慈心)을 잃은 이는 이르러는 곳마다 삼악도(三惡道)를 이룰 것"이라며 섬 없는 정진과 수행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은 9일 오후 7시 청계천에서 '가로연등 설치·전통등 전시 및 자비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자비의 손길' 행사 등 다양한 봉축행사를 전개한다. 14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점등식에는 미륵사지탑(국보 제11호)을 형상화한 높이 22m의 장엄등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사회통합을 기원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전국에서 연등축제가, 5월 2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범오식이 봉행된다.

조동성 기자

“동국역경원 독립운영”

東大 영배 이사장, 월운 스님에 참회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왼쪽)이 4월 6일 봉선사를 방문 월운 스님에게 역경원장 해임 등에 대해 사죄했다.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동국역경원에서 일방해임됐던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찾아가 참회했다. 동국역경원장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조계, 이하 동진위)는 "영배 스님이 4월 6일 봉선사 다경실로 월운 스님을 찾아 삼배를 올리고 사죄했다"고 7일 밝혔다.

영배 스님은 "12월 1일 (영담 스님에게) 직무대행을 지명된 뒤 월운 스님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총장을 잘 관리하지 못했음은 물론, 동국역경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관심부족 등도

든 것이 큰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다. 참회드린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영배 스님은 동국역경원의 존치 및 동국역경원의 독립적인 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월운 스님에게는 '명예역경원장직' 제의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뜻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영배 스님의 방문은 3월 31일 조계 스님(동진위 위원장)이 영배 스님을 면담해 성사됐다.

조동성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자광 스님, ▶9 배명식 권수형 부부, ▶23 원학 스님

법구경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진리의 길 모른다면
지혜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역명매장)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상담전화 번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얼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6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둘러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길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둘러서서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개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사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둘러서서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대만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양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영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김용사 30분소요, 보문사 30분소요, 장안사 30분소요, 부석사 40분소요, 봉정사 50분소요, 명사사 50분소요

대만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